

省齋 柳重敎의 『小學』 解釋의 特徵과 意義

－ 「小學說」을 中心으로

최서형 *

-
1. 서론
 2. 주자학과 선유설에 대한 계승과 비판
 3. 벽이단 의식
 4. 「小大學合圖」 작성
 5. 결론
-

■ 국문요약

본고의 목적은 성재 유중교의 『小學』 해석의 특징과 의의를 살피는 데에 있다. 해석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주자학과 선유설을 계승하되 회의의 과정을 거쳐 틀린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다. 주자학에 대해 교조적 태도를 견지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학문의 엄밀성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벽이단 사상을 드러낸 것이다. 유중교는 경전의 내용을 위정척사 등 정치사상에 반영한 대표적인 인물이기에 그의 벽이단 의식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벽이단 해석은 조기교육 강조, 무관한 주제에서 벽이단으로의 서술 층위 전환, 그리고 타협 없는 강경한 자세 세 가지의 특징을 띤다.

셋째, 「小大學合圖」를 그린 것이다. 유중교는 해당 도설에 『小學』과 『大學』 두 책을 대칭시키며 두 책의 구조가 일치한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小學』의 宗

*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석사 / E-mail: bookworm27@naver.com

旨를 立敎로 설정한 것은 매우 특징적이다.

종합하자면 유중교의 『小學』 해석은 주자학을 토대로 이상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유학자들은 경학의 이론을 경세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유중교는 화서학과 학자로서 경전 논리에 근거하여 외세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선배 주자학자들의 학설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조선 주자학자들은 주자학을 과도하게 숭배하여 주자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그를 이단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유중교는 순정한 주자학자였고, 그의 주자설 비판은 주희의 위상을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주자학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제어: 유중교, 『小學』, 화서학과, 벽이단 의식, 「小大學合圖」

1. 서론

본 논문은 省齋 柳重敎(1832~1893)의 『小學』 해석의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柳重敎는 華西 李恒老의 高弟로, 본관은 고흥(高興)이고, 字는 穉程이며 號는 省齋이고 색목은 복인이다.

당시 조선은 서세동점으로 인해 혼란하였고, 이에 조선 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어지러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화서학파는 경전의 가르침을 토대로 외세를 배격하는 理 중심의 사상적 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중교는 重菴 金平默과 함께 화서학파를 이끌며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항로의 학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화서학파는 師說 墨守와 調補의 차이로 김평묵과 유중교 계열로 분열하여 논쟁하였다. 치열한 논쟁 끝에 유중교 계열이 우위를 차지하였고, 화서학파의 학맥은 유중교 이후 그의 제자 의암 유인석으로 이어졌다.¹⁾ 즉 유중교의 학문은 화서학과 학문의 분기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주자학의 所依經傳은 『大學』이다. 하지만 주희는 『大學』을 읽기 전 『小學』에 대한 이해가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 주자학자는 주희의 학설을 숭배하였고, 그들 역시 『大學』 공부에 앞서 『小學』을 매우 중시하였다.

유중교 역시 『小學』을 중시하였다. 그는 『小學』과 『大學』을 덕을 이루는 기틀과 문으로 보았고,²⁾ 『論語』와 『孟子』는 『小學』과 『大學』의 의미를 부연한 책으로 보았다.³⁾ 즉 학문의 기초는 『小學』과 『大學』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중교 또한 주자학자이기에 『大學』 공부에 앞서 『小學』 공부가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더 나아가 그는 대학에 진학한 자가 관리가 되어도 덕을 닦고 백성에게 임하는 것은 소학의 涵養에 근본하고, 벼슬에서 물러난 자가 열심히 일하고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소학의 견문에서 얻은 것이며, 상하의 덕이 어우러지면 大同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⁴⁾ 유중교는 『小學』은 단순 修身의 내용을 넘어서 대동사회의 전범을 묘사한다고 본 것이다. 즉 유중교의 『小學』 해석을 통해 비단 修身의 要法뿐만 아니라 그의 정치 논리까지 아울러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그의 위정척사 등 사회운동의 지향점을 파악할

1) 분열의 쟁점은 이항로의 심설에 대한 견해 차이이다. 이항로의 학설은 唯理論에 가깝다. 그는 理와 氣 사이에 위계를 지어 理 중심의 학설을 제창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발전시키면 중화문명을 순전한 理로, 서양문명을 사특한 氣로 설정하기까지에 이른다. 하지만 이항로의 학설은 과도하게 理의 절대성을 강조하여 理氣論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즉 이상적인 이론이지만 현실과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것이다. 김평묵은 이항로의 학설을 계승하려 하였다. 하지만 유중교는 스승의 학설의 오류를 보완하여 師說의 정합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2) 柳重教, 『省齋集』 卷十八, 「答宋文好」, 「(問) 小大學, 成德之基址門庭, 論孟近思, 成德之節目規模乎? (答) 是.”

3) 柳重教, 『省齋集』 卷二十三, 「小大學總說」, “論語孟子者, 二聖師平日教人之言, 而雜記成書, 蓋小學大學之衍義也.”

4) 柳重教, 『省齋集』 卷二十三, 「小學說」, “進升大學者, 爲公卿大夫, 而其所以脩德臨民者, 固已本之於小學之涵養, 退歸鄉里者, 爲農工商賈, 而其所以服勤事上者, 亦皆得之於小學之聞見, 上下合德, 以成大同之治, 是則王者化成天下之具.”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화서학과 내 유종교의 위상을 고려해 볼 때, 화서학과 문도들의 『小學』 해석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유종교 경학 연구 성과로는 그의 경학을 온전히 설명하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⁵⁾ 비록 박순남의 연구가 존재하나, 그의 논문은 이조 후기 小學學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에 집중하여 유종교의 『小學』 해석의 대의를 온전히 담지는 못하였기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유종교의 『小學』 해석을 다루기 위해서는, 조선 『小學』에 대한 연구사 정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에 시기별 조선 『小學』의 특징을 정리한 연구사를 지면상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정호훈(2016)의 논문은 조선 전기, 특히 15-16세기 『小學』 주석서를 정리하였다. 그의 논문은 15세기 대표 『小學』 주석서는 세종대 중국에서 들어온 何士信의 『소학집성』, 성종대 중국에서 들어온 程愈의 『소

5) 박순남(2012)은 이조 후기 小學學의 形成과 展開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유종교의 『小學』 분절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박순남의 논문은 유종교의 『小學』의 개략적 틀만 제시하였고, 그 속에 담긴 의미까지 면밀히 서술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오국평(2004)은 유종교의 『詩經』 해석을 통해 유종교가 주자설을 교조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경서를 해석하였다고 밝혀내었다. 하지만 오국평이 소재로 한 글은 주자설에 대한 해석 없이 질문만을 담은 질문지이기 때문에, 오국평의 글은 유종교의 해석을 일부 곡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익(2011)은 유종교의 경학과 경세론을 함께 다루었으나, 그의 논문은 온전히 경학만을 다룬 것이 아니기에 유종교의 경학을 개괄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난숙(2021)은 유종교의 『周易』 해석을 다루었는데, 유종교의 역학은 상수역학을 위주로 하고, 理學 중심의 해석이 돋보인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유종교의 『주역』 저술은 미완성된 글이기에 이난숙의 해석은 유종교 역학의 대의를 온전히 품지 못했을 가능성 또한 있다. 최석기(2017)의 논문은 유종교의 『中庸』 해석을 언급하였는데, 유종교의 『中庸』 해석 구조가 한원진의 4대절설에 정자의 3분설을 대입하였다고만 서술하였다. 최석기의 논문은 유종교의 『中庸』 해석을 다룬 논문이 아니라 이항로의 견해와 비교하는 예시였기에, 유종교의 학설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최서형(2024)의 논문은 유종교의 『大學』 해석을 서술하였고, 유종교의 『大學』 해석의 특징과 그의 의를 설명하였다. 하지만 몇몇 서술이 다소 단편적이고 단정적이다.

학집설』이 대표적이었음을 설명한다. 또한 16세기는 중종대 조광조를 필두로 『소학』 보급 운동이 이루어졌고, 그 중심에는 당시 사림이 중시한 『소학집설』과 한글로 번역된 『번역소학』이 있었음을 설명하였다.

박순남(2019)의 논문은 박세채의 「소학문답」을 중심으로 17세기 『소학』 연구의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주희의 저술로서 『小學』의 권위를 높이는 과정에서 『소학집주』와 중국 五家의 주석의 착오를 바로잡는 것이다. 둘째, 『小學』 본문의 기물과 제도에 대한 검토이다. 셋째, 『小學』의 내용을 분절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다.

박순남(2022)의 논문은 조선후기 『小學』 해석의 시대적 추이에 따른 특징을 설명하였다. 그는 16세기 『小學』 해석의 특징을 『석의』 주석 방식의 준용·자구 훈고 및 명물 고증 두 가지로 분석하였다. 17-18세기 『小學』 해석의 특징을 자구의 주석의 정합성 검토·언해 번역의 정합성 검토·인물 고증과 사건 의리 변증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19세기 『小學』 해석의 특징에 대해서는 분절 체계의 정립·동국 제현의 주석 정본화로 도출하였다.

본론에서 서술할 유중교 『小學』 해석은 세 가지이다. 첫째, 주자학과 선유설에 대한 계승과 비판이다. 유중교는 주자학을 존신하였지만, 주희의 학설을 교조적으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선유설에 오류나 의문점이 있을 때, 연구를 통해 그것을 명확히 밝혀 학문의 엄밀성을 높이고자 한 점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벽이단 의식 제고이다. 화서학파의 위정척사운동의 목적은 주자학의 논리를 바탕으로 동양의 正學을 보위하고 서양의 邪學을 배척하는 것이다. 유중교는 『小學』 해석에서 벽이단의 중요성을 피력하였고, 경전 해석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그것이 드러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셋째, 「小大學合圖」 작성이다. 도설은 학자의 경전 해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그는 『大學』과 『小學』 두 경서의

도설을 「小大學合圖」 하나에 합쳤다. 이 도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저본은 『省齋集』⁶⁾ 제23권 「小學說」이다. 번역본을 참고하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일부 윤문하였다.

이상으로 본 논문의 저술 목적과 목차를 설명하였다. 아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서술하겠다.

2. 주자학과 선유설에 대한 계승과 비판

화서학파는 주자학의 가르침을 지키고 더 나아가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유종교 또한 그러하였고, 선배 주자학과 학설을 존신하였다. 하지만 유종교는 그것에 대해 교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학설을 수용하는 자세를 견지하되 그들의 설을 일일이 연구하였고, 간혹 의문이 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설에는 가감 없이 비판하였다.

① 주자께서는 『小學』이라는 책에 小引을 지어 卷首에서 말씀하셨고, 또한 별도로 운문을 사용하여 題辭를 지어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읊게 하셨다. 그 뜻이 매우 아름다워, 사람들로 하여금 感發하는 부분이 있게 한다.⁷⁾

② “성인의 도는 귀에 들어와 마음에 보존되어서 온축하면 德行이 되고, 행하면 事業이 되니, 저기 文辭만 할 뿐인 자는 비루하다.” 이는 염계선생(주돈이)께서 세속을 깨우쳐 인도하신 큰 가르침이다. 명도선생(정호)께서 말씀하셨다. “자제들 중 경박한데 뛰어난 자는, 글을 짓지 못하게 한다.” 이천선생(정이)께서 말씀하셨다. “높은 재주를 갖고 있는

6) 『省齋集』(『한국문집총간』 卷323-324).

7) 柳重教, 『省齋集』 卷二十三, 「小學說」, “朱子於小學之書, 既作小引, 弁之卷首, 又別用韻語爲題辭, 令學者朝夕歌之, 此意甚美, 使人有感發處. 蓋亦古學宮遺則也.”

데 문장을 잘하는 것은 불행하다.” 말의 실마리가 유래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주자께서는 일일이 그것들을 이 책에 실어 처음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도덕·문에·본말·경중의 갈림길에서 일찍이 向背를 정하게 하셨다. 그 의미가 또한 깊다.⁸⁾

위 두 예시는 유중교가 주자학과 선유설을 계승한 면모를 드러낸다. ①은 주희가 『小學』에 대해 지은 小引과 題辭를 고평가한 부분이다. ②는 『小學』에서 인용한 도학자들의 문장들을 열거하였다. 인용한 문장은 각각 「嘉言」 제61장⁹⁾, 제3장¹⁰⁾, 제69장¹¹⁾이다. 유중교는 주희가 위 문장들을 『小學』에 포함시킴으로써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向背, 즉 도덕적 가치판단의 준거를 정해주었다고 평하였다. 이는 유중교가 주희의 학문을 숭배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예시는 유중교가 주자학과 선유의 경설을 계승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① 外篇 두 편은 漢나라 이래로 당시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언행이 古道에 합하는 것들을 붙여 보고 감동할 수 있는 자료로 삼은 것이다. 이것이 『小學』의 편을 나눈 대의이다. 伯兪는 漢나라 사람인데 內篇에 있고 ‘從善如登’은 周나라 말인데 外편에 있으니, 우연히 검사를 빠뜨린 것이다.¹²⁾

8) 柳重教, 위의 글, “聖人之道, 入乎耳存乎心. 蘊之爲德行, 行之爲事業. 彼以文辭而已者陋矣. 此廉溪先生警世隔俗之大訓也. 明道則言“子弟輕俊者, 不得令作文字, 伊川則言有高才能文章爲不幸. 可見語緒之有自來矣. 朱子一一載之此書, 令始學者於道德文藝本末輕重之分, 早定向背也. 此其意亦深矣.”

9) 『小學』, 「嘉言」, 第六十一章, “聖人之道, 入乎耳存乎心. 蘊之爲德行, 行之爲事業. 彼以文辭而已者陋矣.”

10) 『小學』, 「嘉言」第三章, “憂子弟之輕俊者, 只教以經學念書, 不得令作文字, 子弟凡百玩好皆奪志, 至於書札, 於儒者事最近, 然一向好著, 亦自喪志.”

11) 『小學』, 「嘉言」, 第六十九章, “人有三不幸, 少年登高科, 一不幸, 席父兄之勢, 爲美官, 二不幸, 有高才能文章, 三不幸也.”

12) 柳重教, 위의 글, “外二篇, 附之以漢以來至當時人言行之合於古道者, 以爲觀感之資. 此其分篇大意也. 伯兪漢人也而在內篇, ‘從善如登’周語也而在外篇. 偶失照檢也.”

② 남녀가 구별이 있는 후 부자가 친한 것은, 부부가 짝을 정한 이후 사람이 각기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고 그 자식을 자식으로 대하여 친족을 친히 여기는 은혜가 생기는 것이다. 『集解』의 마씨의 설은, 매우 迂緩하다.¹³⁾

③父子 사이는 은혜가 의리를 가리기 때문에 숨겨주는 것은 있어도 범하는 것은 없다. 君臣 사이는 의리가 은혜를 가리기 때문에 범하는 것은 있어도 숨겨주는 것은 없다. 師弟 사이는 은혜와 의리가 모두 서로 가리지 않기 때문에 범하는 것도 없고 숨겨주는 것도 없다. 『集解』에서 말한 ‘스승이라는 것은 도가 존재하는 바이다. 간하여도 거절 당하지 않으니 범할 필요가 없고, 허물이 있으면 응당 의심하여 물어야 하므로, 숨길 필요가 없다.’는 매우 긴요한 설명은 아닌 듯하다.¹⁴⁾

④ 이천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동지에 始祖에 제사 지내고, 立春에 선조에 제사 지내고 9월에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禩祭 지낸다.’ 『集說』에서 주자께서 말씀하셨다. ‘始祖의 제사는 국가의 禩와 비슷하고 선조의 제사는 禩와 비슷한데, 옛날에는 이것이 없었다. 이천선생께서 의리로 시작하셨다. 나는 처음엔 제사를 지냈지만, 이후 그것이 참람하다는 것을 깨달아 지금은 감히 제사 지내지 않는다.’ 내가 선사께 들었다. ‘왕이 9월에 황제에게 제사 지내고 아버지에게 배향하였는데, 이천선생의 禩祭는 실로 이에 근본하니 그 참람함을 혐의한 것은 동지와 입춘의 제사와 다를 것이 없다. 주자께서 두 제사를 폐하시고 禩祭는 폐하지 않으셨는데, 다만 그의 생일이 이달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고생을 추념하셨고, 이미 거행된 제사를 차마 폐하지 못하셨을 뿐이다. 내 생각에 분수로는 始祖와 先祖가 이미 親盡하면 사대부는 본디 감히 제사 지내지 않는다. 오직 禩祭는 응당 제사를 지내야 하므로 주자께서 두 제사의 참람함을 혐의한 것을 논하셨지만 禩祭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셨다. 시기상 9월의 禩祭는 혐의가 없을 수 없다.’ 정말로 선사의 말과 같다면, 요컨대 주자께서 禩祭를 폐하지 않은 것은 마침내 백세의 正禮가

13) 柳重教, 위의 글, “男女有別然後父子親, 言夫婦有定耦然後, 人各父其父子其子, 而親親之恩生也. 『集解』馬氏說, 殆迂緩矣.”

14) 柳重教, 위의 글, “父子恩掩義, 故有隱而無犯, 君臣義掩恩, 故有犯而無隱, 師弟兼恩與義不相掩, 故無犯無隱. 『集解』“師者道之所在, 諫必不見拒, 不必犯也, 過則當疑問, 不必隱也.” 此言似不甚親切矣.”

되는 것이 불가하다.¹⁵⁾

위 네 예시는 주자학과 선유설에 대해 비판하거나 오류를 지적한 면 모를 드러낸다. ①은 유중교가 주희를 비판한 것이다. 外篇은 漢 이후의 예시를 모은 것인데 周의 말인 ‘從善如登¹⁶⁾’을 차용하였으니, 이에 주희가 예시를 잘못 선택한 것을 摘示하였다. 전술하였듯 그는 주희를 존신하였으나 그의 경설의 오류까지 무분별하게 수용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절대적 존재인 주희의 오류에 대해 일부 적시할지라도 유중교는 학문의 엄밀성을 지키고자 하였다.

②는 「明倫」 제62장¹⁷⁾에 대한 해석이다. 유중교가 비판하였던 마씨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마씨가 말하였다. “父子는 天性에서 나오거늘 ‘남녀가 구별이 있는 후 부자가 친하다.’고 한 것은 어째서인가? 대개 남녀가 그 안에서 분별이 없으면 부부의 도가 사라져서 음란하고 방탕한 죄가 많아지니, 비록 부자간의 가까운 사이라도 역시 친해질 수가 없다. 남녀가 분별이 있는 후에 부자가 친해지는 은혜가 있으니, 부자가 서로 친함의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서로 친한 義가 있다. 그러므로 의가 생겨나니, 이로 미루어

15) 柳重教, 『省齋集』 卷二十三, 「小學說」, “伊川先生言‘冬至祭始祖, 立春祭先祖, 季秋祭禘.’ 集說朱子曰, ‘始祖之祭, 似國家之禘, 先祖之祭似禘, 古無此, 伊川以義起, 某當初也祭, 後覺得僭, 今不敢祭.’ 愚聞之先師, ‘王者於季秋, 祭帝而配之以考, 伊川禘祭實本於此, 其爲嫌僭, 與冬至立春之祭無異矣. 朱子之廢二祭而不廢禘祭, 特以其生朝在是月, 故追念劬勞之恩, 不忍廢已舉之祭耳. 竊謂以分則始祖先祖親已盡, 士大夫本不敢祭, 惟禘在所當祭, 故朱子論二祭之嫌僭而不及於禘, 以時則特祭禘於季秋, 亦不能無嫌.’ 誠如先師之言, 要之不可以朱子之所不廢而遂爲百世正禮也.”

16) “從善如登”은 『小學』, 「嘉言」, 第五十八章, “古語云, 從善如登, 從惡如崩.”의 말이다.

17) 『小學』, 「明倫」, 第六十二章, “禮記曰, 夫昏禮, 萬世之始也. 取於異姓, 所以附遠厚別也. 幣必誠, 辭無不腆, 告之以直信, 信事人也, 信婦德也. 一與之齊, 終身不改, 故夫死不嫁. 男子親迎, 男先於女, 剛柔之義也. 天先乎地, 君先乎臣, 其義一也. 執桴以相見, 敬章別也. 男女有別然後, 父子親, 父子親然後 義生, 義生然後禮作, 禮作然後萬物安, 無別無義, 禽獸之道也.”

서 군신과 형제와 장유와 봉우의 사이에 이르기까지 다 의가 있으면 밝은 文이 있어 서로 접할 수 있다. 그러므로 義가 생겨난 후에 禮가 일어난다고 말한 것이다. 예가 일어나면 귀천에 등급이 있고 상하에 분수가 있으니, 이것이 만물이 편안해지는 까닭이다.”¹⁸⁾

유중교의 해석은 결혼 후 아버지를 아버지로, 자식을 자식으로 대함으로 친족끼리 친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 결혼 후 이루어지는 양상을 중심으로 해설했다. 반면 마씨의 해석은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보다는, 과할 정도로 성리학적 이론에 천착하였다. 이론에 치우쳐 현실과 유리된 것이다. 이러한 마씨의 주석은 실제 결혼 후 벌어지는 일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러므로 유중교는 마씨의 주석을 현실성이 부족한, 매우 迂遠한 서술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③은 「明倫」 제102장¹⁹⁾에 대한 해석이다. 유중교는 父子·君臣·師弟 사이의 관계의 특징을 규정하였다. 하지만 『集解』의 해석은 그렇지 않다. 스승은 도가 존재하는 바라고 하며 ‘不必犯’·‘不必隱’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不必犯’·“不必隱”은 ‘可犯’·‘可隱’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도가 존재하는 스승을 경우에 따라 범하거나 숨길 수 있는 것이다. 『集解』의 풀이가 가변적인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장의 신뢰도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유중교는 그것을 필요하지 않다고 논리적 정합성을 지적한 것이다.

18) 『小學集註』, 「明倫」, 第六十二章, “馬氏曰, 父子出於天性, 而曰男女有別然後父子親何也? 蓋男女無別於內, 則夫婦之道喪, 而淫辟之罪多, 雖父子之親, 亦不得而親之也. 男女有別然後, 父子有相親之恩, 父子有相親之恩, 則必有相親之義, 故義生焉. 由是推之, 至於君臣兄弟長幼朋友之際, 皆有義, 則粲然有文以相接, 故曰義生而後禮作. 禮作而貴賤有等, 上下有分, 此萬物所以安也.”

19) 『小學』, 「明倫」, 第一百二章, “禮記曰, 事親有隱而無犯, 左右就養, 無方, 服勤至死, 致喪三年. 事君有犯而無隱, 左右就養, 有方, 服勤至死, 方喪三年. 事師無犯無隱, 左右就養, 無方, 服勤至死, 心喪三年.”

④는 「嘉言」 제21장²⁰⁾에 대한 해석이다. 정이천은 시조·선조·아버지에게 세 번 제사를 지냈다. 주희는 이것에 대해 원래 제사는 禘祭만 하는 것이고, 정이천이 지낸 나머지 두 번의 제사는 참람하다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유중교는 先師의 설로 주희의 설을 비판하였다. 先師는 이항로로 판단된다. 이항로는 禘祭가 본디 王者가 행하는 예법이기에, 정이천의 행동은 참람하다고 한 것이다. 이는 주희가 禘祭를 지낸 것 또한 참람한 행동이라는 논리로 이어진다. 주희가 禘祭를 폐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생일이 그달에 있어 부모를 기리기 위해서였다고 하였고 주희의 설은 혐의가 없을 수 없다고 하였다. 유중교는 이항로의 학설에 기초하여 주희의 설은 正禮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주희의 행동을 비판한 것뿐 아니라 『集說』상의 주자설까지 비판한 것이다.

기실, 조선 후기 학문은 주자학을 과도할 정도로 숭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례로 白湖 尹鑄(1617~1680) 등 혹자가 주희의 해석과 다른 견해를 내비친 경우, 그를 사문난적으로 공격하는 경우 또한 왕왕 있었다.

그러나 유중교는 주자학과 선유들의 학설을 적극 수용하되, 懷疑를 통해 학설에 오류가 있을 경우 지적하여 그것을 바로잡아 학문의 엄밀성을 提高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주자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량하여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한 것이다.

20) 『小學』, 「嘉言」, 第二十一, “伊川先生曰, 冠昏喪祭, 禮之大者, 今人都不理會, 豺獾皆知報本, 今士大夫家多忽此, 厚於奉養而薄於先祖, 甚不可也. 某嘗修六禮大略, 家必有廟, 廟必有主, 月朔必薦新, 時祭用仲月, 冬至祭始祖, 立春祭先祖, 季秋祭禘, 忌日遷主, 祭於正寢, 凡事死之禮, 當厚於奉生者, 人家能存得此等事數件, 雖幼者可使漸知禮義.”

3. 벽이단 의식

주희는 『小學』의 가르침을 修身에서부터 平天下까지의 근본이 된다고 하였다.²¹⁾ 조선 유학자들은 통상 『大學』에서 해당 공부들은 知行 공부 중 行에 속한다고 보았다. 즉 『小學』은 실천 중심의 경서이며, 작게는 개인의 행동 수양부터 크게는 정치학 이론까지 모두 포괄하는 내용을 담은 책이다.

주희는 『小學』의 내용은 理가 일에 모인 것이고, 『大學』은 일의 理를 궁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²²⁾ 주희는 아이들에게 천명 등 어려운 이치를 가르치면 안 되고, 쉽게 알 수 있는 사례를 들어 가르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였다.²³⁾ 『小學』의 성격은 동몽서이므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천명 등 어려운 내용은 아이가 자라 大學에 진학한 후 집중적으로 가르치면 되기 때문이다. 『大學』은 궁리 공부를 위주로 하고 『小學』은 함양 공부를 위주로 하는데, 함양으로써 인륜에 대한 덕성을 체화시킨 후 『大學』의 궁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小學』에서 행하는 함양의 맥락이다.²⁴⁾

하지만 『小學』이 담고 있는 治國·平天下 등의 내용은 아이들이 이해하기에 자못 어려워 보일 수 있다. 사실 『小學』은 특성상 동몽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小學』의 독자층은 아이에게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주희는 『小學』이 인품을 만드는 본보기이기 때문에 독자층을 초학자로 규정

21) 『小學』, 「小學書題」, “古者小學, 教人以灑掃應對進退之節, 愛親敬長隆師親友之道, 皆所以爲修身齊家治國平天下之本.”

22) 『朱子語類』 卷七, “小學是直理會那事, 大學是窮究那理.”

23) 『朱子語類』 卷七, “天命非所以教小兒, 教小兒, 只說箇義理, 大概只眼前事, 或以灑掃應對之類, 作段子亦可.”

24) 진원, 「『소학』의 구성내용으로 본 주자의 소학론」, 『한국학연구』 제37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546~548면.

하였다.²⁵⁾ 그는 『大學或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문) 어려서 배우는 士들이 그대의 말로 순서를 따라 점진적으로 등급을 뛰어넘고 절차를 업신여기는 병폐를 면할 수 있다면, 진실로 다행 일 것입니다. 만약 나이 들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도리어 『소학』에 종사하고자 한다면, 꼭 막혀 들어가지 못하고 노력해도 이루기 어렵다는 근심을 면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바로 『大學』에 종사하고자 하면 또한 순서를 잃고 근본이 없어 스스로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그 세월은 이미 지나간 것이니, 진실로 다시 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공부의 차례와 조목과 같은 경우에는, 어찌 마침내 다시 보완할 수 없겠습니까?”²⁶⁾

인용문에서 주희는 나이 든 사람 또한 학문의 순서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小學』 공부의 대상을 비단 초학자뿐만이 아니라 공부를 늦게 시작한 사람들까지 편입시킨 것이다. 즉 주희는 『小學』을 비단 동몽서일 뿐만 아니라 成人이 되어서도 도덕 수양을 위해 활용해야 하는 일반 수양서로도 여겼음을 알 수 있다.²⁷⁾ 『小學』의 실질적 독서 대상이 老少를 포괄하기 때문에, 治國·平天下 등에 해당하는 정치 관련 조목 또한 포함 가능하다.

유학의 논제에는 수양·정치·대인 관계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존재하고, 이단 배척 또한 그것에 포함되는 주제 중 하나이다. 이단은 유가 중심의 통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유학의 流派 중 하나

25) 『朱子語類』 卷七, “後生初學, 且看小學之書, 那是做人底樣子.”

26) 『大學或問』, 經一章, “(問)曰幼學之士, 以子之言而得循序漸進, 以免於躐等陵節之病, 則誠幸矣. 若其年之既長而不及乎此者, 欲反從事於小學, 則恐其不免於扞格不勝, 勤苦難成之患. 欲直從事於大學, 則又恐其失序無本, 而不能以自達也. 則如之何? (答)曰是其歲月之已逝者, 則固不可得而復追矣. 若其工夫之次第條目, 則豈遂不可得而復補耶?”

27) 진원, 위의 글, 555면.

인 주자학 역시 正學을 보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단 배척을 강조한다. 화서학파는 주자학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단인 서양문명으로부터 중화 문명을 보위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목표는 위정척사운동의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 유종교 역시 경전의 뜻을 분석하여 시대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²⁸⁾ 즉 유종교의 경전 해석을 통해 그의 가치관과 시대 인식을 알 수 있다. 아래는 『小學』 해석에서 나타나는 그 예시이다.

「嘉言」편의 끝부분은 책을 읽고 학문을 하는 방법을 두루 썼고, 老·佛을 변론하고 배척하는 논의로 끝맺었다. 老·佛을 변론하고 배척하는 것을 이 어찌 소학의 선비가 가히 알 수 있겠는가? 말하자면 正學이 밝지 않은 것은 이단의 무리가 그것을 해쳤기 때문이다. 이는 천지 간 陰陽消長의 큰 분계점이다. 소학의 선비가 지금은 비록 어리석고 어려도 훗날 중요한 직책에 나아간 자들은 모두 聖門을 수호하고 世教를 주관할 책임이 있으니, 일찍부터 名目を 알게 하여 向背를 정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뜻이 심오하다.²⁹⁾

『祭義』 「祭義」에서 말하였다. ‘서리가 내려 군자가 밟으면 필시 悽愴한 마음이 생기는데, 추워져서 그런 것이 아니다. 봄에 비와 이슬이 이미 땅을 적시거든 군자가 밟고 愴傷한 마음이 생기는데, 마치 죽은 부모를 밟 것 같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사의 예법이 생긴 이유이다. 하늘의 기운이 외부에서 바뀌어 내 마음이 내부에서 愴傷하니, 이것은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인가? 성인께서 막을 수 없는 것에 기인하시어 節文하셨으니, 도로써 그것을 이루셨을 뿐이다. 무릇 무엇 때문이었겠는가? 후대에 사방 오랑캐의 습속이 中國을 교란하고 제사가 거짓된 설이라

28) 정길연, 「省齋 柳重教의 書社儀節 考察」, 『퇴계학논총』 제33호, 사단법인 퇴계학부 산연구원, 2019, 153면.

29) 柳重教, 위의 글, “嘉言之末, 歷叙讀書爲學之法, 而卒之以辨斥老佛之論. 辨斥老佛, 此豈小學之士所可與知耶? 曰正學之不明, 異端害之也. 此天地間陰陽消長之大界分也. 小學之士, 今雖蒙幼, 異日進就, 皆有守聖門主世教之責, 不可不使早知名目以定向背也. 其意深矣.”

고 하는 말이 왕왕 閭巷에 떠돌았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백성들이 오래도록 教養을 잃었고, 아울러 막을 수 없는 것들과 함께 파리해진 후 저들이 따라서 기회를 틈탄 것이다. 그러므로 저들에게 쏠리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우려할 것은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지 않다.³⁰⁾

‘鄴下의 풍속은 전적으로 부녀자가 집안을 유지한다. 이는 곧 恒·岱 지방의 풍속이다. 선유가 말하였다. “恒·岱 사이는 곧 拓跋氏가 開國하고 興業한 땅이다. 그러므로 그 유풍이 이와 같다. 예로부터 오랑캐 핏줄인데도 중국에 들어와 구습의 고루함을 변혁하고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元魏보다 뛰어난 자가 없는데도 그 유풍은 이와 같으니, 하물며 변혁하고 변화하길 생각하지 않고서 단지 중국을 능멸하고 뛰어넘으려는 자들은, 그들의 유풍은 응당 어떠하겠는가?”³¹⁾

첫 번째 인용문은 「嘉言」편 제91장³²⁾에 대한 유중교의 견해이다. 유중교는 여기서 소학의 선비가 벽이단 사상을 배워야 하는 까닭을 설명한다. 그들은 훗날 聖門을 수호하고 世教를 주도할 중역이므로 조기에 교육하여 正學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단 및 정학의 구분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만 15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내용이다. 이는

30) 柳重教, 위의 글, “祭義曰, ‘霜露既降, 君子履之, 必有悽愴之心, 非其衷之謂也. 春雨露既濡, 君子履之, 必有怵惕之心, 如將見之.’ 此祭祀之禮所由作, 天氣變遷於外, 而吾心怵惕於內, 是孰使之然哉? 聖人因其不可遏者而爲之節文, 以道達之而已. 夫何爲哉? 後世四夷之俗, 交亂中國, 謂祭爲僞之說, 往往行於閭巷. 此無他. 爲斯人者, 久失教養, 並與其不可遏者銷鑠焉然後, 彼從而乘之也. 故靡然而不之悟. 可憂在此而不在彼也.”

31) 柳重教, 위의 글, “鄴下風俗, 專以婦持門戶. 此乃恒岱之遺風.’ 先儒言: ‘恒岱之間, 卽拓跋氏開國興業之地. 故其遺風如此.’ 古來以夷種而入中國, 能華化舊習之陋者, 莫尙於元魏, 而其遺風猶如此, 況不思華化而徒以陵躐中國者, 其遺風當如何也?”

32) 『小學』, 「嘉言」, 第九十一章, “明道先生曰, 道之不明, 異端害之也. 昔之害, 近而易知, 今之害, 深而難辨. 昔之惑人也, 乘其迷暗, 今之入人也, 因其高明. 自謂之窮神知化, 而不足以開物成務, 言爲無不周徧, 實則外於倫理, 窮深極微, 而不可以入堯舜之道. 天下之學, 非淺陋固滯, 則必入於此. 自道之不明也, 邪誕妖妄之說競起, 塗生民之耳目, 溺天下於污濁, 雖高才明智, 膠於見聞, 醉生夢死, 不自覺也. 是皆正路之藜蕪, 聖門之蔽塞, 闢之而後, 可以入道.”

그들이 이단과 정확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이단의 교묘한 술책에 현혹되기 쉽다는 의미 또한 내포한다. 그러므로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기 전 초기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인용문은 「明倫」편 제28장³³⁾에 대한 유중교의 견해이다. 유중교는 여기서 이단에 대응하는 자세를 설명하였다. 원래 이 경문은 이단 배격이 아니라 작고한 부모에 대한 효심을 설명한다. 하지만 유중교는 여기에 벽이단 의식을 투영시킴으로써 논의의 범위를 효심으로부터 벽이단 의식에까지 확장시켰다. 그는 효심이 있기에 제사가 생긴 것이고, 제사의 예법은 성인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후대에는 조선에 서양 문물 등 이단의 물결이 밀려왔고, 백성들에게 제사는 허황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유중교가 생각한 백성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바로 教養의 부족이었다. 교양의 부족으로 인해 백성들이 처신의 방향을 모르고, 이단의 무리가 그들을 현혹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유중교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확한 가르침을 세워 백성을 가르친 후 사특한 무리를 물리치는, 내수외양을 주장하였다.

세 번째 인용문은 「嘉言」편 제46장³⁴⁾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경문은 부녀자가 집안의 대소사를 전담하는 것을 다루는 내용이다.

인용문의 岱는 代의 오기이다. 拓拔氏는 선비족의 한 유파인데 4세기 무렵 중원을 침입하여 北魏를 세웠고, 北魏는 元魏로도 불린다. 즉 탁발씨는 오랑캐에 속한다. 유중교는 拓拔氏를 夷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33) 『小學』, 「明倫」, 第二十八章, “祭義曰, 霜露既降, 君子履之, 必有悽愴之心, 非其寒之謂也. 春雨露既濡, 君子履之, 必有怵惕之心, 如將見之.”

34) 『小學』, 「嘉言」, 第四十六章, “江東婦女, 略無交遊, 其婚姻之家, 或十數年間, 未相識者, 唯以信命贈遺, 致慙歎焉. 鄴下風俗, 專以婦持門戶, 爭訟曲直, 造請逢迎, 代子求官, 爲夫訴屈, 此乃恒代之遺風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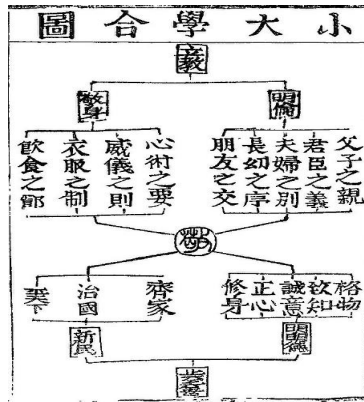
그들의 구습의 고루함을 변혁하고 변화시키려 한 민족이지만, 그들의 여성 중심적 유풍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하였다. 더 나아가 중국을 노리는 외세의 실정은 拓拔氏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부분에서 유중교의 이단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화서학파는 중화 문명을 순정한 理로, 기타 夷狄은 사악한 氣로 취급하였다. 상술한 拓拔氏는 논리상 氣에 해당한다. 氣에 해당하는 이적은 그들의 오류를 깨닫고 중화의 理의 경지에 나아가고자 하여도 理에 도달하지 못한다. 스스로를 반성한 拓拔氏조차도 그러한데, 기타 夷狄은 어떻겠는가? 유중교는 夷狄에 대해 교화, 즉 타협 불가한 무리라고 판단한 듯하다. 더 나아가 중화문명을 수호하기 위해 외세에 대한 강경한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예시는 아이들에게 벽이단 개념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와 내수 외양의 이단 대응 방법, 그리고 외세에 대한 강경 대응 자세 세 가지 특징을 서술하였다. 유중교가 활동한 당시 조선은 서세동점으로 인하여 혼란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위정척사와 학자들은 전술하였듯 주자학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외세에 대응하고자 하였고, 이를 경전 주석에 투영시키기도 하였다. 당시 유중교의 목표는 崇正學闢異端이었고, 『小學』 경문의 주석에 해당 내용이 아니더라도 강경한 자세의 이단 배척 개념을 덧붙여 논의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아동에게 정확 수호를 촉구하였다. 이는 당시 지식인으로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 시도로 보인다.

4. 「小大學合圖」 작성

동아시아 경학 중 조선 경학만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는 도설을 통해 자신의 경서 해석을 표현한 것이다.³⁵⁾ 이는 조선 초기부터 구한말까지 조선 전체 시기를 통틀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유중교 또한 다수의 도설을 통해 자신의 경전 이해 방식을 드러내었고, 『小學』에 대해서는 「小大學合圖」³⁶⁾를 작성하여 『小學』과 『大學』의 연관성을 표현하였다.



〈「小大學合圖」〉

「小大學合圖」를 살펴보면, 『小學』과 『大學』의 구조를 대응시켰다. 『大學』의 삼강령이 明明德·新民·止於至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대해 유중교는 『小學』 또한 立教·明倫·敬身を 삼강령으로 삼아 『大學』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고 하였다.

유중교는 『小學』 내편 「立教」·「明倫」·「敬身」·「稽古」에 대해 「立

35) 최석기·강현진, 『조선시대 대학도설』, 보고사, 2012, 3면.

36) 柳重教, 『省齋集』 卷二十四, 「大學說」에 수록.

教」를 綱으로 삼고, 「明倫」·「敬身」을 目으로 삼고, 「稽古」는 맺음말로 여겼다고 보았다.³⁷⁾ 그는 『小學』을 강목체의 체제로 이해하였고, 단순한 내편-외편 구조 해석이 아닌 강목체 해석을 적용하여 『小學』의 구조를 한층 더 구조화하고자 한 것이다. 외편 두 편에 대해서는 漢 이후 옛도에 맞는 예시들을 덧붙여 놓은 것인데³⁸⁾, 외편은 增益이 가능하다고 보았다.³⁹⁾ 핵심 내용이 아닌 예시의 증익이기 때문이다. 그는 『小學』을 강목체의 체제로 이해하였고, 단순한 내편-외편 구조 해석이 아닌 강목체 해석을 적용하여 『소학』의 구조를 한층 더 구조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 도설의 가장 큰 특징은 「立教」를 『小學』의 핵심으로 설정한 것이다. 『大學』의 삼강령은 지어지선이 최상위 개념인데 입교를 최상위에 두어 지어지선과 대응시켰다. 또한 명륜을 신민에, 경신을 명명덕에 대응시켜 단계별로 대응시켰다. 도설 상 그는 명륜의 내용은 五倫으로, 경신의 내용은 心術之要·威儀之則·衣服之制·飲食之節으로 분절하였다.⁴⁰⁾ 또한 도설 가운데에 敬을 배치하여 두 책의 핵심은 敬으로 귀결되게 하였다. 敬은 주자학에서는 主一無適으로, 사물을 대하는 일관된 자세를 뜻한다. 유충교는 敬을 心の 主宰이며 모든 행동의 본원으로 삼았고, 의리에 敬을 배합하는 것이 聖門의 학문이자 자신의 심신을 바로잡는 관건으로 보았다.⁴¹⁾ 그는 이러한 敬을 두 책의 골자로 삼아 학문을

37) 柳重教, 『省齋集』 卷二十三, 「小學說」, “小學書凡六篇, 內四篇, 輯三代典籍及諸傳記之文, 首之以立教爲之綱, 次列明倫敬身以明其目, 卒之以稽古.”

38) 柳重教, 위의 글, “外二篇, 附之以漢以來至當時人言行之合於古道者, 以爲觀感之資.”

39) 柳重教, 위의 글, “至若外篇, 則後乎朱子者, 按例續修, 雖代各一書可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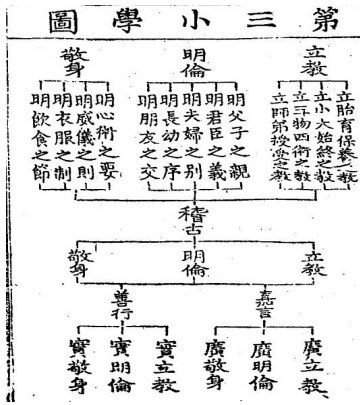
40) 유충교의 『소학』 분절 양상은 ‘박순남, 「조선후기 소학학의 형성과 전개」,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24~126면’ 참조. 박순남은 해당 논문에서 유충교의 『小學』 분절은 내편의 立教·明倫·敬身に 치중하였다는 한계가 있지만, 기존의 정설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각 절의 의미를 명확히 하며 논지 접속을 강화한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41) 柳重教, 위의 글, “蓋敬者一心之主宰, 百行之本源也. 義以配敬, 則乃聖門爲學, 直內方外之大關鍵也.”

대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조상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大學』의 삼강령은 명명덕-신민-지어지선의 순서이고 『小學』의 삼강령은 입교-명륜-경신의 순서인데 유종교는 명륜을 신민에, 경신을 명명덕에 대응시킴으로써 두 강령을 교차하여 대응시켰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유종교는 두 책의 저술 목적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小學』의 가르침의 급선무는 사람이 금수와 다른 까닭에 있으니, 인륜의 大綱을 먼저 밝힌 후 그것이 경신에 근본하는 것이라고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았다. 그리고 『大學』의 가르침의 중점은 대인과 소인의 구별에 있으므로 天德의 本體를 앞세우고 新民으로 미루어 나가는 것이라 여겼다.⁴²⁾ 즉 『大學』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대인과 소인을 판별하는 것이고, 『小學』은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되 사람과 사물의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小學』은 사람을 가르치는 책이기 때문에, 인륜이 갖든 행동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쳐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인식시킨 후 다음 단계인 경신으로 넘어가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明倫」·「敬身」의 순서를 바꾼 것이다.

42) 柳重教, 위의 글, “小學之教所急, 在人之所以異於禽獸者. 故首之以人倫之大綱, 而後溯其本於敬身. 大學之教所重, 在夫人之所以異於庶民與小子者. 故表之以天德之本體, 而後推其用於新民.”



〈「小學圖」〉

기실, 『小學』의 삼강령 구분은 유종교만의 학설은 아니다. 이황의 「聖學十圖」 중 「小學圖」⁴³⁾를 보면 유종교와 동일하게 삼강령 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황은 『小學』의 삼강령을 동일한 층위에 배치한 반면, 유종교는 立教를 明倫·敬身 위에 배치함으로써 입교가 두 강령보다 상위 개념임을 표현하여 두 책의 삼강령 구조를 일치시켰다.

「小大學合圖」 내의 삼강령 체제는 이황의 도설과 동일하지만, 그 강령의 상하위를 구분하여 『大學』의 구조와 상응하게 한 것은 매우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유종교 『小學』 해석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필자는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주자학과 선유설을 적극 계승하되, 회의의

43) 李滉, 『退溪集』 卷七, 「進聖學十圖簡」에 수록.

과정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비판한 것이다. 유중교가 중시했던 것은 학문의 엄밀성이었다. 선배 학자들의 학설에 오류가 있으면 논쟁을 불사하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그러나 주자설을 비판하였다고 하여 그를 반주자학자로 볼 수는 없고, 주자설을 개량하여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벽이단 의식을 표출한 것이다. 기실, 유학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이단을 물리치는 것이기에 벽이단 의식만으로는 특징이 되기 어렵다. 하지만 유중교는 벽이단 의식을 바탕으로 위정척사운동을 펼쳤기에 그의 경전 해석상 벽이단 의식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중교의 벽이단 해석은 조기교육, 무관한 주제에서 벽이단으로 서술 층위 전환, 그리고 타협 없는 강경한 대응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여기서 위급한 국가 정세를 타개하고자 하였던 유중교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셋째는 「小大學合圖」를 그린 것이다. 도설은 자신의 경서 해석 이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유중교는 「小大學合圖」 속에 『小學』과 『大學』 두 책을 합쳤는데, 두 책을 대칭시켜 두 책의 구조를 일치시킨 것이다. 특히 『大學』의 止於至善처럼 『小學』의 立教를 宗旨로 삼은 것은 매우 특징적이다.

전술하였듯 『大學』은 일의 理를 궁구하는 책이고 『小學』은 理가 일에 발현된 것을 설명한 책이다. 즉 유중교는 『小學』 해석을 통해 작게는 修身의 要法, 크게는 그의 이상 사회관을 표출하고자 한 것이다.

체특징을 종합하였을 때, 유중교의 『小學』 해석은 주자학을 기반으로 이상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학의 이론을 통해 경세를 실현하는 것은 유학자의 목표 중 하나이다. 즉 시대 상황에 따라 경학의 지향점도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정척사파의 탄생 동기는 외세로 인한 국가의 혼란이다. 이에 따라 유중교의 선유설 개정은 비단 오류를

교정하여 학문의 엄밀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 상황에 알맞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예로 유중교의 師說 개정의 이유 중 하나는 이항로의 심설이 과도하게 理에만 천착하였기 때문에, 현실에 산재한 악을 증명하기에는 정합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중교의 이러한 일부 선유설 개정은 주자학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화서학파의 학설은 간재학과 문도에 의해 주자학의 논리에 벗어나 이단에 가깝다는 극렬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주자 경학의 본지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경전 해석인데, 주희의 형이상학적 해석은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대한 부응을 목적으로 하였고⁴⁴⁾ 유중교의 해석 또한 난세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 후기 학문은 과도하게 주자학을 숭배하여 모 학자의 학설이 조금이라도 주희의 설을 비판하거나 그것과 미세하게 다르면 그 학자를 사문난적으로 공격하였다. 실제 화서학파의 大宗 이항로는 주희와 송시열의 학문을 존중하여 주자학의 宗旨를 이었다고 자칭하였다. 일부 주희를 비판한 점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자학자가 아닌 이단이라고 칭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고, 오히려 주자학을 한층 더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유중교 『소학』 해석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필자는 유중교의 경학이 분명 경학사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중요도에 비해 그의 경학이 주목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본고를 통해 유중교 경학에 대한 이해가 증대되고, 더 나아가 화서학파 및 위정척사 경학에 대한 논의가 정밀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44) 이영호, 「다산 『대학』 해석의 경학사적 위상」, 『동양철학연구』 제86집, 동양철학연구회, 2016, 68~73면.

〈참고문헌〉

1. 원전 및 번역본

『大學』.

『大學或問』.

『小學』.

『小學集註』.

『省齋集』(『한국문집총간』 卷323~324).

유중교 저·하영희 외 역(2013), 『省齋集』, 보고서.

『朱子語類』.

주희, 유청지 편, 이이 집주, 이충구 외 3인 역주(2019), 『소학집주 上·下』, (사) 전통문화연구회.

『退溪集』(『한국문집총간』 卷29~31).

2. 단행본 및 학위·학술논문

박순남(2012), 「朝鮮後期 小學學의 形成과 展開」,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순남(2019), 「남계 박세채의 「소학문답」을 통해 살펴본 17세기 『소학』 연구의 쟁점과 의의」, 『동양한문학연구』 제53집, 동양한문학회.

박순남(2022), 「조선후기 『소학』 해석의 시대적 추이에 따른 특징」, 『동양한문학연구』 제62집, 동양한문학회.

鄔國平 저·소현성 역(2004), 「朱熹의 「詩」說에 대한 柳重教의 질의 - 「詩講義發問」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제15집, 한국철학사연구회.

이난숙(2021), 「유중교 역학의 圖象과 數理 해석 연구 - 「講說雜稿」·「易說」을 중심으로 -」, 『울곡학연구』 제46집, (사)울곡연구원.

이상익(2011), 「省齋 柳重教의 經學과 經世論」, 『태동고전연구』 제27호,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이영호(2016), 「다산 『대학』 해석의 경학사적 위상」, 『동양철학연구』 제86집, 동양철학연구회.

이향준 외 11명(2022), 『화서학파의 심설논쟁』, 문사철.

정길연(2019), 「省齋 柳重教의 書社儀節 考察」, 『퇴계학논총』 제33호,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 정호훈(2016), 「조선전기 『소학(小學)』 이해와 그 학습서」, 『한국계보연구』 제6집, 한국계보연구회.
- 진원(2015), 「『소학』의 구성내용으로 본 주자의 소학론」, 『한국학연구』 제37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최석기·강현진(2012), 『조선시대 대학도설』, 보고서.
- 최석기(2017), 「조선시대 『중용』 해석의 程子三分說 수용양상」, 『韓國漢文學研究』 제65집, 한국한문학회.
- 최서형(2024), 「省齋 柳重教의 『大學』 解釋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Shengzhai省齋 Liuzhongjiao柳重教's Interpretation of 『Xiaoxue小學』:

Focusing on 「xiaoxueshuo小學說」

Choi, Seohy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Shengzhai省齋 Liuzhongjiao柳重教's 『Xiaoxue小學』. His interpretation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hree key aspects.

First, Liuzhongjiao柳重教 inherited the interpretations of the Neo-Confucian school but tried to correct errors through critical reflection. Rather than accepting ZhuXi朱熹's doctrines dogmatically, he adopted a critical approach in order to enhance the rigor of scholarly inquiry.

Second, he revealed anti-heretical ideology. Since Liuzhongjiao柳重教 is a representative person who reflected the contents of the scriptures in political thoughts such as weizhengchixie衛正斥邪, Liuzhongjiao柳重教's anti-heretical consciousness deserves attention. His ideology has 3 characteristics: emphasizing early education, a transiting from a topic unrelated to anti-heresy, and an uncompromisingly firm stance in anti-heretical matters.

Third, Liuzhongjiao柳重教 sketched a diagram called 「Xiaodaxuehetu小大學合圖」, which symmetrically aligned 『Xiaoxue小學』 with 『Daxue大學』. He believed that the structures of these two books corresponded. In particular, it is fairly characteristic to consider the core meaning of 『Xiaoxue小學』 is lijiao立教.

In conclusion, Liuzhongjiao柳重教's interpretation of 『Xiaoxue小學』 aimed

* Master's degree in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 E-mail: bookworm27@naver.com

to construct an ideal society grounded in Neo-Confucianism. Confucian scholars sought to apply classical theories to the governance of society. Liuzhongjiao柳重教, as a scholar of the Hwaxi華西 School, Liuzhongjiao柳重教 endeavored to appropriately respond to foreign powers based on the logic of the jingdian經典. In doing so, he tried to amend the theories of senior Neo-Confucianism scholars.

Joseon Neo-Confucianism scholars iconized ZhuXi朱熹. If someone's opinions is any different from ZhuXi朱熹's theory, academia regarded him as a heretic. However, Liuzhongjiao柳重教 was a pure Neo-Confucian scholar, and his critique of ZhuXi朱熹 was not aimed at diminishing his stature but rather at further advancing Neo-Confucianism.

Key Words

Liuzhongjiao柳重教, 『Xiaoxue小學』, Hwaxi華西 School, anti-heretical ideology, 「Xiaodaxuehetu小大學合圖」

논문접수일: 2024.11.26, 심사완료일: 2024.12.17, 게재확정일: 2024.12.18

